

## 폭염에 지친 것은 돼지보다 양돈농민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사람 체온보다도 더 높은 폭염이 한달여 지나고 보니 자연 앞에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된다. 비가 오지 않아 벼가 타들어 가고, 밭작물이 말라가기도 하였지만, 축산업계도 소, 돼지, 닭 할 것 없이 우유가 안나오고, 분만하던 모돈이 죽는가 하면, 젖달린 새끼돼지가 죽고, 발정이 오지 않거나 종부를 시켜도 재발정이 오는 등 피해가 매우 컸던 지난 여름이었다. 산란계가 산란율이 떨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더위에 폐죽음을 하는 등 축산업계 피해는 실로 대단하였다.

7월 사료 소비량만 보아도 전월 대비 11% 이상 감소한 것을 보면, 자연 앞에 인간의 힘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축의 피해도 피해지만 축사와 축사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주느라 축산농가가 지치고 탈진한 상태가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욕을 많이 상실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가장 큰 문제이다.

전염성 자돈 하리로 피해를 입은데 이어, 이번 더위로 양돈농가들이 치명적 손해를 보게 되어 앞으로 이의 회복에 상당한 시일과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번 폭염피해에 따라 앞으로 돈사 등 축사 시설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4계절이 뚜렷하여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기후조건에서 축사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던 기후가 다만 몇 도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따라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지구의 온난화 현상에 큰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이번 폭염에 의한 피해에 대해 아직 정부의 뚜렷한 대책은 없고, 다만 추석물가 대책을 위해 값이 오르면 돼지고기를 무제한 수입, 방출하겠다고 발표해서 지친 양축농가들에게 더 큰 시름을 안겨 주게 되었다.

과거에는 불황이 오면 그 후에 값이 회복되어 불황을 극복하고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손해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렸다.

최근의 돼지값이 생산비에 비해 높기 때문에

66

이번 폭염의 후유증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이  
 무제한 수입으로 나타난다면 '94년은  
 우리나라 양돈업이 자급을 못하고  
 돼지고기 수입국으로 전락되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99

양돈업이 큰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거의 대부분의 농장이 자돈의 전염성 하리와 폭염 피해를 입었고, 영세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간 정부가 양돈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외쳤고, 충분히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돼지고기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금년에 당초 계획대로 1만3천톤을 수출한다 하여도, 1만6천톤 이상을 수입할 것으로 예견되어 돼지고기 수입국이 되어 버렸다.

내년에는 2만2천톤 이상을 수입할 것이고, 96년에는 약 3만톤, 97년에는 완전 개방으로 돼지고기의 수출산업 육성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물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처럼 값이 올라도 양돈농가의 실질소득이 없는 데 대한 대안없이, 값이 오르면 무제한 수입으로 대처한다는 정책으로는 수출산업으로 육성은 물론, 자급률마저 점점 떨어져 산업으로의 유지도 어렵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실질적으로 양돈업을 경영하는 양돈농가들이 신바람이 나도록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한데, 축산농가의 10년내 숙원인 부가가치세, 관세의 영세율 적용 요청의 거부와 물가가 오르면 무제한 수입하겠다는 물가 정책으로는 신바람도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된다.

돈사 시설을 위한 설계비가 토지가격을 웃돌게 되고 인력난, 분노처리, 출하비용, 각종 소모성 질병 등 이번 폭염보다도 더욱 양돈농가를 주눅 들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비롯해서 어느 것 하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시련은 기회다”라는 구호만으로 버텨 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이번 폭염의 후유증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무제한 수입으로 나타난다면 94년은 우리나라 양돈업이 자급을 못하고, 돼지고기 수입국으로 양돈업이 사양화 되는 원년으로 기록되어질 것이고, 이때 양돈업 관련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는 후세에 몇몇하지 못한 선배로 기록되어질 것이다.

지난 여름은 뜨거웠지만 양돈농가의 가슴은 차가운 겨울이었다. 